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사이에 있는 전도서의 기쁨의 의미

김선종*

1. 들어가며

사람이 느끼고 살아가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 가운데, 사람이 통제하기 더 힘든 감정은 슬픔일 것이다. 기쁨은 기뻐할 환경이 주어질 때 기쁨으로 반응하면 되지만, 기쁨과 달리 단순한 반응으로서의 슬픔은 우울감에 빠져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살전 5:16)은 종말론적인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의 원론적인 가르침인데, 많은 신앙인이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은 마치 신앙이 성숙하지 않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 실제로 중세 수도사들은 슬픔과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게으름을 뜻하는 ‘아케디아’(acedia)의 악덕에 빠지는 것으로 보아 경계했다.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기쁨의 주제를 도외시한 것은 마치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 부르기에는 사치스러운 열매로 여기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¹⁾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기쁨보다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는 경향이다.

* 정읍중앙교회 담임목사, 구약학. 이 글은 2024년 8월 19일에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온신학회 10주년 기념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1) 안젤라 손, 『기쁨의 영성』(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43, 59-102; 김도훈, “기쁨과 행복의 긍정적 삶(생명)의 신학,” 「장신논단」 49 (2017), 145-149.

나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슬픔의 문제에 집중하여 슬픔과 우울감을 포괄하는 멜랑콜리아(melancholi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²⁾ 그 이후에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욕, 예레미야, 요나, 엘리야, 예수가 가지고 있는 멜랑콜리아를 연구했다.³⁾ 이 연구의 결론은 슬픔은 슬픔으로 극복되고, 우울감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예술과 종교 분야에서 창조적인 힘으로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슬픔이 성서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이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을 뜻하는 점에서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쁨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야말로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1절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⁴⁾ - 이 말하고 있듯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기초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선포한 구약의 예언자 하박국 역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신앙을 고백한다(합 3:17-18).

이처럼 기쁨에 관한 가치와 중요성을 성찰하여 구약성서에 나타난 기쁨에 관한 근원을 추적하는 가운데, 그 범위를 전도서로 좁히게 되었다. 첫째 이유는 구약성경 전체에는 우리말 기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이 수백 번에 걸쳐 나타나기에 그 방대한 분량을 검토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는 일반적인

2) 김선중, “욕과 멜랑콜리아 -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욥 10:1상, 『새번역』) -,” 「구약논단」 78 (2020), 8-36; 김선중, “슬픔의 형이상학 - 예레미야와 멜랑콜리아 -,” 「구약논단」 80 (2021), 198-223.

3) 김선중, “멜랑콜리아의 의미: 방법론적 서설,” 「기독교사상」 780 (2023), 108-118; 김선중, “저의 목숨을 거두어주십시오(왕상 19:4),” 「기독교사상」 783 (2024), 101-111; 김선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욥 4:3, 8),” 「기독교사상」 784 (2024), 117-126; 김선중,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22:1),” 「기독교사상」 785 (2024), 102-111.

4) 이 글에서는 『개역개정』을 사용한다.

5) 김진명,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서마당」 120 (2016), 9-24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에 나타나는 기쁨의 용례를 정리한다.

로 구약성경에서 가장 회의적인 인식론과 윤리적 허무주의를 드러내는 전도서에 책의 분량을 기준으로 기쁨에 관한 낱말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구약성서에서 ‘기쁨’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 ‘사파흐’(סָפַח)와 동족어는 260회 이상 나오는데,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권당 길이로 따지면 전도서가 빈도수에서 가장 높다(17회).⁶⁾ 구약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이며 그리스 철학과 조우한 것으로 보이는 전도서의 기쁨을 연구하는 것은 전도서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지금까지 철학, 심리학, 조직신학, 영성학, 묵회 상담학 분야에서 논의된 기쁨에 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⁷⁾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강조하는 전도서에 ‘기쁨’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 기쁨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모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코헬렛과 전도서

우리말 성경 ‘전도서’(傳道書)는 ‘도를 전하는 책’을 뜻하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 성서의 제목은 ‘코헬렛’(קֹהֶלֶת)이다. ‘코헬렛’은 모임이나 집회를 뜻하는 ‘카할’(קָהָל)에서 온 여성 명사형으로 모임이나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이고 전도서에만 나오는 낱말이다(1:1, 2, 12; 7:27; 12:8, 9, 10). 히브리 성서의 제목인 ‘코헬렛’에서 ‘전도서’라는 책 이름이 나오게 된 데에는,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에서 파생된 낱말을 선택했고, 불가타가 이것을 반영한 것에서 왔다(Ἐκκλησιαστής, Ecclesiastes).

6) 박정관, “구약성경의 ‘기쁨,’” 『성서마당』 120 (2016), 120.

7) 로버트 A. 존슨, 『희열 기쁨의 심리학』, 이주엽 역 (서울: 동연, 2018); 박성일, 『헤아려 본 기쁨』 (서울: 두란노, 2021); 안젤라 손, 『기쁨의 영성』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위르겐 몰트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김균진 역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존 파이퍼, 『하나님을 기뻐하라』, 박대영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4).

코헬렛은 교사, 철학자로 부를 수도 있는데,⁸⁾ 히브리 성서의 코헬렛은 사람과 책을 모두 가리키지만, 코헬렛과 전도서를 분리하여 사용할 때 코헬렛은 사람, 전도서는 책을 가리키는데, 가톨릭에서 2005년에 출판한 『성경』은 이 책의 제목을 ‘코헬렛’으로 지칭한다.

2.1. 전도서에 나타나는 모순성

전도서는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에 속한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지혜문학은 성경의 다른 책에 비해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구원사의 입장에서, 지혜문학은 하나님의 구원보다 창조에 관심을 기울인다(욥 38-41, 잠 8 등). 폰 라트(von Rad)와 같은 구약신학의 거장은 구약성서의 창조 신학은 구원 신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겠느냐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창조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조신학이 구원 신학에 비하여 중요성이 간과되는 가운데,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대 상황에서 창조신학을 담고 있는 지혜문학이 강조된 것은 주지된 바이다.

전도서는 율기와 함께 전통과 혁신 사이의 위기의 지혜를 나타낸다.⁹⁾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신명기 신학과 예언서와 잠언의 전통 지혜가 안고 있는 한계에 회의를 품고 도전한다(3:16; 5:8; 7:16; 8:11,15; 9:11-12). 행위 회복 관계, 인과응보라고 하는 교리가 실제에서는 들어맞지 않음을 지적한다. 전도서는 교리와 삶, 이론과 실제 사이의

8) 자끄 엘렐 『존재의 이유: 전도서 묵상』, 김치수 역 (서울: 대장간, 2016), 32;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도서,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묻다』, 이철민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23), 19.

9) 오민수, “전도서 10장 1절 이해와 그 현대적 교훈: 위기사회와 지혜,” 『구약논단』 63 (2017), 74-102.

괴리를 있는 그대로 폭로한다. 이것은 신앙과 실제 삶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코헬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헛되기도 하다고 말한다(4:4). 수고와 재주가 이웃에게 시기를 일으키는데, 질투와 시샘으로 치닫는 경쟁심이다. 헛됨이라는 ‘헤벨’(הֶבֶל)이 칠십인역에서 음역한 ‘아벨’(Αβελ)의 고유명사(הֶבֶל)이기도 한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아벨은 그의 이름 ‘헤벨’이 뜻하듯 사라져버리는 안개요 연기이다. 히브리어 ‘헤벨’이 ‘하벨’이 된 것은 ‘헤벨’의 모음이 아람어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¹⁰⁾ 여하튼 아벨의 이름은 그의 삶의 비극을 암시하는데, 그는 경건하여 희생 제사를 올렸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형 가인의 질투로 죽음으로 귀결된다. 전통 지혜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고 하지만(9:10), 이 또한 헛된 것이 아벨의 삶에 나타난다. 큰일을 성취하지만(2:4), 헛되고(2:11), 최선을 다해 일해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의 모순과 비극을 드러낸다.¹¹⁾

코헬렛은 4장 2-3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짐승이 모두 죽음 앞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말한다(2:16; 3:19; 7:1-4; 9:2-4도 보라). 그는 죽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질 만큼 고통이 깊어 죽는 것이 낫다고 한다. 욥기 3장 3-5절과 예레미야 20장 18절의 고뇌와 같은 암울한 정서이다. 코헬렛은 2장 17절에서 삶을 증오한다. 그러나 9장 4절에서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개가 대표적인 혐오 짐승임을 고려할 때,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죽어 이름을 남긴 위용 있는 존재보다 낫다고 말한다.

코헬렛은 8장 14-15에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말한 다음에 삶을 즐기라고 한다. 14절의 허무함과 15절의 즐거움 사이에 모순이 있다. 전도서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관찰하지만, 삶이 선하다고 믿는다.

10) C. L. Seow, *Ecclesiastes*,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60-65.

11) 유윤중, “전도서 안의 창세기,” 『구약논단』 7 (1999), 114-115.

¹⁴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¹⁵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순성은 저자의 어수룩함에서 나오지 않는다.¹²⁾ 허무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부담되어 기쁨을 나중에 첨가한 것이 아니다.¹³⁾ 전도서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¹⁴⁾ 어느 것이 코헬렛의 발언인지, 어느 것이 인용된 말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 일의 보람과 허무 사이에 존재하는 전도서의 모순과 모호성은 지혜문학으로서의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창조신학에서 기인한다. 창세기 1-3장의 창조와 창조 세계의 현실을 지혜문학의 관점에 따라 반영한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살롬의 찬양을 담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완전한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진실하고 유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 코헬렛은 주권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2장의 진리와 더불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결과로 유린된 세상 현실을 동시에 확실하게 인정한다.¹⁵⁾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매우 좋고 아름답다고 평가하시지만, 코헬렛은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12) 전도서의 저작 연대와 모순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사를 위해서는 김지명, “전도서 연구 동향 - 기록 연대와 본문 내의 모순을 중심으로,” 『성서마당』 128 (2018), 72-86을 보라.

13)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위해서는 홍성혁,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구약논단』 42 (2011), 39를 보라.

14) 인용 가설을 내세우는 대표적인 학자는 R. Gordis, “Quotations in Wisdom Literature,” *JQR* 20 (1937), 123-147이다.

15) 자끄 엘릴 『존재의 이유』, 135; 유윤종, “전도서 안의 창세기,” 『구약논단』 7 (1999), 95-118;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도서』, 28.

안에서 영속적인 가치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헛됨을 느낀다.¹⁶⁾ 이것은 단지 개인이 느끼는 헛됨이 아니라, 세상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성이다. 전도서 12장 7절은 흠과 호흠이라는 언급을 통해 창세기 2장 7절을 반향하지만, 죽음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9절도 반향한다.

삼단논법식의 동일률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한 논법은 동어반복적이기 때문이다. 허무에 관한 단락과 기쁨에 단락을 따로 하나씩 묶어서 읽으면 논리적인 모순이 전혀 없다. 이들이 섞여 있어 허무와 기쁨을 동시에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순과 모호성이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모순에 의해 이해되는 근본적인 실존적 경험인 삶의 비극적인 자각이 가능하다.¹⁷⁾ 전도서에 있는 모호성으로 독자는 인생의 의미와 세상의 질서에 대해 보다 깊이 사색하게 된다.¹⁸⁾ 이처럼 전도서는 모순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다.¹⁹⁾ 자신이 시도한 철학적 고찰에 따라 독자들이 삶의 부조리를 직시하기를 바란다.²⁰⁾ 그러나 이러한 코헬렛의 수사학 전략은 독자를 허무주의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 경외로 승화시킨다.²¹⁾ 즐거움과 허무 가운데 하나를 유일한 메시지로 여겨서는 안 되고, 양쪽 모두 삶의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삶에 대한 두 관찰이 모두 참이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말하는 헛된 세상에 존재하는 기쁨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6)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도서』, 60.

17) 자끄 엘렐, 『존재의 이유』, 61; 김지명, “전도서 연구 동향,” 72-86.

18) 김순영, “전 11:7-12:8의 모호성과 알레고리적 해석의 재고,” 『Canon&Culture』 8 (2014), 208.

19)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에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고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4 (2014), 283.

20)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도서』, 26-27.

21) 홍성혁,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51.

2.2. 회의주의, 허무주의, 냉소주의

전도서에서는 헛되다고 하는 히브리 낱말 ‘헤벨’이 시작(1:2)과 마무리(12:8)에 나와 몸말을 감싼다.²²⁾ 이것은 헤벨이 인간 존재의 부인할 수 없는 측면임을 말하며, 헤벨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전제한다.²³⁾ 우리말로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 낱말 ‘헤벨’은 사라짐, 허무, 수증기, 호흡, 연기, 구름, 증기 등을 뜻한다.²⁴⁾ 바솔로뮤(Batholomew)는 ‘수수께끼’ 혹은 ‘수수께끼 같은’으로 번역한다.²⁵⁾ 인생이 수수께끼 같음을 표현한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헛됨 가운데 헛됨이라는 히브리어 용법으로, 최상급을 나타낸다. 완전히 헛되다는 것이다.²⁶⁾ ‘헤벨’이 구약성경 70회 가운데 전도서에만 38회 등장하는 점에서 그 의미의 스펙트럼이 허무함에서부터 수수께끼에 이르기까지 넓더라도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함을 다루고²⁷⁾ 염세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²⁸⁾ 따라서 형식일치의 번역 원칙에 따라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헤벨’을 ‘헛됨’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모든 문맥을 다 설명할 수 있지는 않다. ‘헤벨’은 다양한 문맥에서 상징성을 갖는 다의적 낱말이다.²⁹⁾ 분명한 사실은 전도서의 신학이 인생이 겪는 허무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최근 출판된 구약개론의 전도서 부분에서도 그 짜임새를 이루는 큰 방향이 헛됨임을 보여주고 있다.

22) 최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104 (1999), 112-145.

23) 롤런드 퍼피, 엘리자베스 휴와일러, 『잠언 전도서, 아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5), 214.

24)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도서』, 33-34. 용례는 1:2, 14; 2:1, 11, 15, 17, 19, 21, 23, 26; 3:19; 4:4, 7, 8, 16; 5:7, 10; 6:2, 4, 9, 11, 12; 7:6; 8:10, 14; 9:9; 11:8, 10; 12:8이다.

25) 크레이그 G.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베이커 지혜 문헌·시편 주석 시리즈 6, 김정훈 역 (서울: CLC, 2020).

26) 자크 엘릴, 『존재의 이유』, 78-79.

27)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1*, Trans. D. M. G. Stalker (New York: Harper & Row, 1962), 454. 『새한글성경』은 전 1:2을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하고 코헬렛(집회설교자)이 말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로 옮긴다.

28) J. I. Crenshaw, *Ecclesiaste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23-28.

29) 최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104 (1999), 112-145.

A 표제(1:1)

B 머리말(1:2, 헛됨)

C 전제(1:3-11,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D 헛된 인생(1:12-6:9)³⁰⁾과 사람의 유한한 능력(6:10-11:8)³¹⁾

C 결론(11:9-12:7,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B 맺음말(12:8, 헛됨)

A 후기(12:9-14)

Buehlmann³²⁾

A 테두리(1:2-3)

B 우주론(시가)(1:4-11)

C 인간론(1:12-3:15)

D 사회 비판(3:16-4:16)

X 종교 비판(시가)(4:17-5:6)

D 사회 비판(5:7-6:10)

C 이데올로기 비판(6:11-9:6)

B 윤리(끝: 시가)(9:7-12:7)

A 테두리(12:8)

Lohfink³³⁾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전도서를 이러한 허무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흐름이 있다. 구약성경을 리틴어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347-420년)는 해 아래 모든 즐거움이 헛됨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금욕주의적 삶의 필요성을 역설한다.³⁴⁾ 20세기 구약학자 크렌쇼(Crenshaw)와 왓슨(Watson)은 인식론적인 비판주의적인 입장을 발견한다.³⁵⁾

30) 지혜의 무용(1:18), 부귀영화(2:11), 지혜자와 우매자(2:16; 6:8), 노동(2:22), 정의와 불의(3:16; 5:8),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3:19), 학대(4:1)

31)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7:26), 불가지론(8:7,17), 부정의한 현실(8:10), 상식과 다른 현실(9:11; 10:6-7)

32) A. Buehlmann, "Qohéleth," T. Römer, J.-D. Macchi et C. Nihan éd., *Introduction à l'Ancien Testament* (Genève: Labor et Fides, 2009), 632-634.

33) 루트거 슈빈호르스트쾨베르거, "코헬렛"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660에서 재인용.

34) 크레이그 G.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43.

전도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책이다.³⁶⁾ 전도서가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그리스 철학³⁷⁾과 초기 헬레니즘 사회의 그리스 회의주의 철학사상의 영향을 반영하는데,³⁸⁾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헬레니즘 영향 아래 살았던 시대를 드러낸다.³⁹⁾ ‘정원’에 해당하는 ‘파르테스’(פַּרְתֵּס, 2:5)와 ‘징벌’에 해당하는 ‘피트감’(פִּיטְגָם)이라는 페르시아 차용어가 나오는 점(8:11), 페르시아 시대의 경제 용어인 ‘이익’을 뜻하는 ‘이트론’(יִטְרוֹן, 1:3; 2:11, 『개역개정』의 ‘수고’)과 ‘손해’를 뜻하는 ‘헤스론’(הֶסְרוֹן, 1:15, 『개역개정』의 ‘모자란 것’)과 ‘해쉬본’(הִשְׁבֹּן, 7:25, 27, 29; 9:10, 『개역개정』의 ‘이치나’ ‘계획’)과 그리스 철학의 관심사가 나오는 점에서 페르시아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 저작된 것으로 보인다.⁴⁰⁾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내가 보다’(אֲנִי רֹאֶה)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1:14; 2:24; 3:10, 16, 4:15; 5:12, 17; 6:1; 7:15; 8:9, 10; 9:13; 10:5, 7), 주체로서의 저자는 일종의 경험론자임을 알 수 있다.⁴¹⁾ ‘해 아래에서’라는 문구는 코헬렛이 사변적인 철학자가 아니라 현실 세상에 대한 관찰을 중요시하는 경험론자라는 사실을 암시하는데, 구약성경에서 29번 나오는데 오직 전도서에만 나온다. 이 표현은 해가 비치는 지상의 모든 곳을 가리키고,⁴²⁾ 형이상학적인 교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⁴³⁾

경험론자로서 코헬렛의 특징은 기쁨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 ‘심하’(שִׂמְחָה)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구약성서에서 ‘심하’는 사람이

35) 크레이그 G.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64-65.

36) 크레이그 G.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93.

37) 슈빈호르스트 쇤베르거, “코헬렛,” 668;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93-100.

38) 안근조, “헬레니즘시대의 지혜의 변천: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7 (2015), 111.

39)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도서』, 23.

40)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180년에 이르는 전도서의 저작 연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서명수, “중용의 관점에서 본 전도서의 새로운 지혜,” 『구약논단』 47 (2013), 193-196와 채은하, “지혜문학과 설교: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7 (2018), 168-169를 보라.

41) A. Buehlmann, “Qohéleth,” 632.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도서』, 47은 ‘내가 보다’는 표현이 코헬렛이 이 단계에서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석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42)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도서』, 40.

43) 자끄 엘뤼, 『존재의 이유』, 127, 각주 132.

행복을 느끼는 데서 오는 내적인 기쁨을 나타낸다(사 30:29; 시 21:7; 122:1; 126:2). 사람을 흥겹게 만드는 행위이고(창 31:27; 삼상 18:6). 순전히 외적인 것으로 행복한 마음 상태가 전혀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사 22:13).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향락이나 유흥을 가리키기도 한다(잠 21:17). 하나님 이 동사의 주어로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는 주체나 기쁘게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시 92:5; 104:31; 사 9:16). 이러한 구약의 용법과 달리 코헬렛은 ‘사마흐’를 17번 사용하는데,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코헬렛이 성찰하는 일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실존이기 때문이다.⁴⁴⁾

2.3. 쾌락주의

‘쾌락주의’(hedonism)라는 낱말에는 ‘즐거움’ 또는 ‘쾌락’이란 의미를 갖는 그리스 단어 ‘헤이도네이’라는 어원이 있다.⁴⁵⁾ 코헬렛은 시험 삼아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려고 하는데, 라이트(Wright)는 이것을 쾌락주의의 태도로 본다.⁴⁶⁾ 코헬렛이 이러한 시도를 해 본 다음에 얻은 결과는 이것 역시 결국 헛되다는 것이다(2:1-2). 물론 공상이 가미된 해석이기는 하지만, 1881년에 플럼프트(Plumptre)가 코헬렛은 자기의 부유한 부모와 친구들이 가진 관료주의적 종교에 환멸을 느껴, 코헬렛이 알렉산드리아로 여행을 가서 왕실에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무절제한 관능적 삶을 누렸다고 해석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⁴⁷⁾

이사야 22장 13절의 쾌락주의적 사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쾌락을 누리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⁴⁸⁾

44) 박요한 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 (서울: 성서와함께, 1997), 101-105.

45) 존 파이퍼, 『하나님을 기뻐하라』, 박대영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4)에서 ‘회락주의’라는 번역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쾌락주의’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다.

46)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도서』, 52.

47) 크레이그 G.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56.

48) 박요한 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 90.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사야는 죽음 앞에 인생을 비관하고 체념했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져들게 된 사람들을 고발한다. 쾌락을 누리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쾌락에 눈을 돌리게 한다.⁴⁹⁾ 기쁨을 상실하는 결과는 허무감이다.⁵⁰⁾

이러한 쾌락주의의 입장과 달리 전도서 2장 24-26절은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데, 인간적인 차원(2:10)과 신학적인 차원(2:24)의 기쁨의 이중적인 차원이 있다. 특별히 전도서 9장 7-9절은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는 가르침을 준다.

⁷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⁸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⁹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헛된 날은 지나가는 날로 유한한 인생을 뜻한다. 인생이 지나가 사라져 헛되지만, 그러한 지나가고 헛된 날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헛됨을 이기게 하는 기쁨에 대해 전도서가 주는 해법이다. 코헬렛은 삶의 회로애락이 가지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방법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전도서는 일상과 괴리된 영적인 가르침을 제시하지 않는데,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세속의 삶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경쟁과 일중독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내일이 아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49) 안젤라 손, 『기쁨의 영성』, 121.

50) 박성일, 『헤아려 본 기쁨』 (서울: 두란노, 2021), 198.

예수님의 가르침(마 6:11)과 통한다.⁵¹⁾ 또한 그 이전에 7절의 ‘별써, 이 미’(בְּרִשָּׁה)가 전도서에만 나오는 낱말(1:10; 2:12, 16; 3:15[x2]; 4:2; 6:10; 9:6, 7)로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음식 물’(מִנְיָה)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창세기 3장 19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코헬렛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으로 이해한다.⁵²⁾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 이상을 제시한다.

2.4.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사이에 존재하는 기쁨의 한계

하나님이 전도서 9장 7절에서 기쁨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바, 그분이 기쁨을 창조하셨다. 호라티우스(Horatius, 기원전 65-8)의 라틴어 시구에서 나온 카르페 디엠(carpe diem), 문자적으로 ‘오늘을 붙잡아라’, 따라서 ‘오늘을 즐기라’에 대한 본문(2:10-11, 24-26; 3:12-13, 22; 5:17-19; 8:15; 9:7-9; 11:8-10)이 여럿 나오는데,⁵³⁾ 코헬렛은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통하여 헛됨과 병행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정교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문학의 짜임새에서 기쁨 역시 헤벨의 테두리 안에 놓여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인생을 즐기라고 권유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온다.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음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남은 삶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⁵⁴⁾ 죽음에 대한 생각은 기쁨을 상대화하지 않는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코헬렛이 쾌락주의를 권하고 있지 않음

51) 김순영, “전도서의 일상과 노동의 관점,” 『성경원문연구』 42 (2018), 40-41.

52) 차준희,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도서 9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37 (2010), 204-209.

53)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3 (2012), 82-104.

54)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 42 (2011), 21-25.

을 말한다. 코헬렛은 유대 신앙 안에 머물렀던 지혜자이다.⁵⁵⁾ 코헬렛은 자율적인 그리스식 인식론을 써서 삶의 의미를 탐구했지만, 그가 가진 이스라엘 전통의 참된 통찰력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전통 지혜 정신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⁵⁶⁾ 죽음 없이 삶이 없고 창조가 혼돈을 전제로 하듯이, 기쁨은 슬픔과 허무를 전제로 한다.⁵⁷⁾ 또한 삶이 헛되다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나를 중심에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⁵⁸⁾ 전도서의 헛됨은 염세주의와 냉소주의의 차원이 아니다. 지혜도 헛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한계 안에 있다.⁵⁹⁾ 이러한 점에서 코헬렛이 말하는 기쁨의 삶에 대한 권고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성찰이나 ‘아래로부터의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쁨과 누림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2:24)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선물’(3:13; 5:18)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기쁨의 삶에 대한 교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헬렛이 말하는 기쁨의 삶은 ‘아웨 경외’와 ‘창조주 기억’이라는 신학 교훈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헤벨의 극단이나 카르페 디엠, 곧 즐거움에 대한 확신의 극단에 전도서를 맞추면 안 되는데, 이것은 책의 중심이 되는 모순된 견해와 삶과 죽음의 긴장을 문학적으로 병렬해 놓은 책임을 무시하는 처사다.⁶⁰⁾ 전도서는 널리 퍼져 있던 그리스 사상과 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리스식의 자율적 인식론을 자신들의 경험에 적용하는 유혹을 받았다. 많은 젊은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헤아릴 수 없으며 완전히 수수께끼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⁶¹⁾ 코헬렛은 데리다(Derrida)처럼 인간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식론을 문제 삼고 해체한다.⁶²⁾

55) 박요한 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 204.

56) 크레이그 G.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100; 김창대, “전도서에서 헤벨과 신중한 삶,” 「장신논단」 50 (2018), 39-66.

57) 자끄 엘뤼, 『존재의 이유』, 294.

58) 자끄 엘뤼, 『존재의 이유』, 151.

59) 자끄 엘뤼, 『존재의 이유』, 263.

60) 크레이그 G.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160.

61) 크레이그 G.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162.

62) 크레이그 G.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648.

코헬렛은 일상에서의 행복, 지금 이 자리에서의 행복을 추구할 것을 말하여 (3:22; 9:7-10) 허무주의를 극복할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쾌락주의와 다른 것은 행복의 한계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2:1).

2.5. 전도서를 둘러싼 책의 위치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책의 위치(*Sitz im Buch*)를 살펴볼아야 한다. 전도서 앞에 위치한 잠언은 지혜를 능력 있는 여성에 비유하고(잠 31),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음녀(잠 5-7)에 대해 논한다. 다음으로 전도서 뒤에 위치한 아가는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성과의 사랑을 하나님과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으로 해석했지만, 이 해석의 문제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들 사이의 관계를 육체적 사랑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해석은 노골적인 신체 묘사와 육체적 사랑을 논한다는 이유로 정경화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이다. 최근에는 아가 안에 있는 남녀 사이의 사랑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육체적 사랑은 하나님의 복의 관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쾌락주의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지혜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⁶³⁾

전도서 7장 26에서 ‘울무와 같은 여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지혜와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잠언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말하는 아가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여성비하와 여성 혐오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것은 같은 장 29절에서 코헬렛이 하나님이 사람(아담)을 지으신

63) 리처드 S 헤스, 『아가 주석』, 베이커 지혜 문헌·시편 주석 시리즈 7, 김선종 역 (서울: CLC, 2020).

창세기 1장의 창조신학을 암시하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⁶⁴⁾

이러한 책의 위치에서 전도서는 기쁨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선물로 인정하고(3:12-13) 기쁨을 찬양한다고 말할 때(8:15) 기쁨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견줄 만큼 높이 평가하지만,⁶⁵⁾ 전도서 안의 큰 틀과 잠언과 아가 사이에서 이러한 기쁨 역시 헛되며 하나님 경외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이지만, 기쁨 자체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3. 나가며

지금까지 전도서에 나타난 회의주의와 쾌락주의 경향 사이에 있는 기쁨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쁨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감정이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지만, 기쁨 역시 헛되다. 기쁨이 헛되다는 것은 사람이 누리고 살아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같다. 전도서가 구약성서 가운데 인간의 실존과 죽음에 대해 가장 철학적인 책이지만, 그러한 종착점을 내다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가장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기쁨은 슬픔과 허무함의 대척점에 있다.

이처럼 코헬렛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쁨을 제시하는 것은 단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 실제로 유대인은 전도서를 고난의 시절에 읽었다. 전도서는 다섯 두루마리라는 메길로트에 속하는 책이다. 이 책은 지혜문학의 오경에 해당하는데, 아기는 유월절, 룯기는 오순

64) 차준희,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42 (2011), 73; 차준희, “코헬렛은 안티페미니스트인가?: 전도서 7장 25-29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2 (2014), 127-155.

65) 하경택,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전 11:9-12:7)으로 보는 전도서의 신학,” 『구약논단』 81 (2021), 94.

절,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 전도서는 초막절, 에스더는 부림절에 읽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데, 숙곳의 초막절은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 행진할 때, 일시적이고 취약한 거처인 장막에서 지내던 때를 기념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광야에 영성한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삶과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전도서는 인간의 취약한 기반을 문제 삼고, 양심을 성찰하게 하며, 모든 공고한 기반을 흔들어 역사의 주재자인 절대자의 보호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앞에 서게 한다.⁶⁶⁾ 기쁨의 절기인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다는 사실은 전도서가 기쁨을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며 기쁨 절기에도 인간의 삶이 짧고 유한함을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⁶⁷⁾ 기쁨의 신학을 절기를 통해 체화한다. 현대인의 큰 비극은 기쁨과 환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된 점이다. 기독교의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슬픔 너머에 있는 영적인 기쁨과 희열의 경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⁶⁸⁾ 전도서를 통하여 헛된 초막에서 펼쳐지는 기쁨의 초막절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주제어>

전도서, 기쁨, 헛됨, 허무주의, 쾌락주의

<Keywords>

Ecclesiastes, joy, vanity, nihilism, hedonism

* 접수일 2025년 2월 1일, 수정일 2025년 3월 5일, 게재 확정일 2025년 3월 20일

66) 자끄 엘릴, 『존재의 이유』, 65-66.

67) 롤런드 머피, 엘리자베스 휴와일러, 『잠언, 전도서, 아가』, 256.

68) 로버트 A. 존슨, 『희열: 기쁨의 심리학』 (서울: 동연, 2018), 15-25.

참고문헌

-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3 (2012), 82-104.
- 김도훈, “기쁨과 행복의 긍정적 삶(생명)의 신학,” 「장신논단」 49 (2017), 143-163.
- 김순영, “전 11:7-12:8의 모호성과 알레고리적 해석의 재고,” 「Canon&Culture」 8 (2014), 207-238.
- _____, “전도서의 일상과 노동의 관점,” 「성경원문연구」 42 (2018), 22-44.
- 김선중, “욕과 멜랑콜리아: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욥 10:1 상, 『새번역』),” 「구약논단」 78 (2020), 8-36.
- _____, “슬픔의 형이상학: 예레미야와 멜랑콜리아,” 「구약논단」 80 (2021), 198-223.
- _____, “멜랑콜리아의 의미: 방법론적 서설,” 「기독교사상」 780 (2023), 108-118.
- _____, “저의 목숨을 거두어주십시오(왕상 19:4),” 「기독교사상」 783 (2024), 101-111.
- _____, “시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욥 4:3, 8),” 「기독교사상」 784 (2024), 117-126.
- _____,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22:1),” 「기독교사상」 785 (2024), 102-111.
- 김지명, “전도서 연구 동향: 기록 연대와 본문 내의 모순을 중심으로,” 「성서마당」 128 (2018), 72-86.
- 김진명,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서마당」 120 (2016), 9-24.
- 김창대, “전도서에서 헤벨과 신중한 삶,” 「장신논단」 50 (2018), 39-66.
- 로버트 A. 존슨, 『희열: 기쁨의 심리학』, 이주엽 역, 서울: 동연, 2018.
- 롤런드 머피, 엘리자베스 휴와일리, 『잠언, 전도서, 아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5.
- 루트거 슈빈호르스트쾨베르거, “코헬렛,”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656-670.

- 리처드 S 헤스, 『아가 주석』, 베이커 지혜 문헌·시편 주석 시리즈 7, 김선종 역, 서울: CLC, 2020.
- 박성일, 『헤아려 본 기쁨』, 서울: 두란노, 2021.
- 박요한 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 서울: 성서와함께, 1997.
- 박정관, “구약성경의 ‘기쁨,’” 「성서마당」 120 (2016), 119-123.
-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 42 (2011), 10-32.
- 서명수, “중용의 관점에서 본 전도서의 새로운 지혜,” 「구약논단」 47 (2013), 183-207.
- 안근조, “헬레니즘시대의 지혜의 변천: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7 (2015), 99-125.
- 안젤라 손, 『기쁨의 영성』,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에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고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4 (2014), 281-310.
- _____, “전도서 10장 1절 이해와 그 현대적 교훈: 위기사회와 지혜,” 「구약논단」 63 (2017), 74-102.
- 위르겐 몰트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김균진 역,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 유윤중, “전도서 안의 창세기,” 「구약논단」 7 (1999), 95-118.
- 자끄 엘렐, 『존재의 이유: 전도서 묵상』, 김치수 역, 서울: 대장간, 2016.
- 존 파이퍼, 『하나님을 기뻐하라』, 박대영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4.
- 차준희,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도서 9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37 (2010), 196-217.
- _____,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42 (2011), 57-85.
- _____, “코헬렛은 안티페미니스트인가?: 전도서 7장 25-29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2 (2014), 127-155.
- 채은하, “지혜문학과 설교: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7 (2018), 162-188.
- 최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104 (1999), 112-145.

- 크레이그 G. 바슬로뮤, 『전도서 주석』, 베이커 지혜 문헌·시편 주석 시리즈 6, 김정훈 역, 서울: CLC, 2020.
- 크리스토퍼 라이트, 『전도서,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묻다』, 이철민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23.
- 하경택, “코헬렛의 마지막 교훈(전 11:9-12:7)으로 보는 전도서의 신학,” 「구약논단」 81 (2021), 72-105.
- 홍성혁,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이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구약논단」 42 (2011), 33-56.
- Buehlmann, A., “Qohéleth,” *Introduction à l'Ancien Testament*, eds. T. Römer, J.-D. Macchi & C. Nihan, Genève: Labor et Fides, 2009, 632-640.
- Crenshaw, J. I., *Ecclesiaste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 Gordis, R., “Quotations in Wisdom Literature,” *JQR* 20 (1937), 123-147.
- von Rad, G., *Old Testament Theology I*, trans. D. M. G. Stalker, New York: New York: Harper & Row, 1962.
- Seow, C. L., *Ecclesiastes*, AB 18C, New York: Doubleday, 1997.

<초록>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사이에 있는 전도서의 기쁨의 의미

김선종

(정읍중앙교회 담임목사, 구약학 박사)

기쁨과 관련된 낱말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회의적인 인식론과 윤리적 허무주의를 드러내는 전도서에 책의 분량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난다.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강조하는 전도서에 ‘기쁨’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 기쁨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모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도서는 교리와 삶,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폭로한다. 전도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순성은 저자의 어수룩함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허무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부담되어 기쁨을 나중에 첨가한 것도 아니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삶과 죽음, 일의 보람과 허무 사이에 존재하는 전도서의 모순과 모호성은 지혜문학으로서의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창조신학에서 나온다. 삼단논법 식의 동일률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름을 설명할 수 없다. 모순에 의해 이해되는 근본적인 실존적 경험인 삶의 비극적인 자각이 가능하다. 전도서에 있는 모호성으로 독자는 인생의 의미와 세상의 질서에 대해 더 깊이 사색하게 된다. 이처럼 전도서는 모순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다. 자신이 시도한 철학적 고찰에 따라 독자들이 삶의 부조리를 직시하기를 바란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책인 전도서는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의 그리스 철학과 초기 헬레니즘 사회의 그리스 회의주의 철학사상의 영향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헬레니즘 영향 아래 살았던 시대를 드러낸다. 유대 신앙 안에 머물렀던 지혜자로서 코헬렛은 자율적인 그리스식 인식론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구하지만, 그가 가진 이스라엘 전통의 통찰력을 부인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통 지혜 정신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죽음 없이 삶이 없고, 창조가 혼돈을 전제로 하듯이, 기쁨은 슬픔과 허무를 전제로 한다. 코헬렛은 일상에서의 행복, 지금 이 자리에서의 행복을 추구할 것을 말하여(3:22; 9:7-10) 허무주의를 극복할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쾌락주의와 다른 것은 행복의 한계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2:1). 코헬렛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현실 앞에 허무주의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이 일상에 주시는 기쁨으로 인도한다.

<Abstract>

The Meaning of Joy in Ecclesiastes between Nihilism and Hedonism

Rev. Dr. Sun-Jong Kim
(Jeongeup Joongang Presbyterian Church)

The word joy appears most frequently in the Book of Ecclesiastes in the Old Testament, which reveals the most skeptical epistemology and ethical nihilism, considering the book's length. The fact that the term joy appears most often in Ecclesiastes, which emphasizes the absurdity and contradictions of life, allows for an exploration of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emotion of joy.

Ecclesiastes exposes the gap between doctrine and life, theory and practice. The contradictions in Ecclesiastes do not arise from the author's clumsiness. It is not the case that the author, burdened by constantly asserting vanity, later added the word joy. It is also not easy to conclude that the different perspectives presented in Ecclesiastes are simply quotations from opposing views. The contradictions and ambiguities in Ecclesiastes, which exist between life and death, the fulfillment of work and its futility, stem from the creation theology in Ecclesiastes as a work of wisdom literature. The differences in the world cannot be explained through syllogistic reasoning. It is through contradiction that a fundamental existential realization—the tragic awareness of life—becomes possible. The ambiguity in Ecclesiastes leads to reflecting more deeply on the meaning of life and the order of the world. In this way, Ecclesiastes speaks

of contradictions, which is intentional. The author hopes that, through the philosophical reflections attempted, the reader will confront the absurdity of life.

Ecclesiastes, the most philosophical book in the Old Testament, reflects the influences of the Epicurean and Stoic schools of Greek philosophy and the skepticism of early Hellenistic philosophy, revealing the era that lived under the influence of Hellenism after the Babylonian exile. As a sage who remained within the Jewish faith, Qoheleth explores the meaning of life through a self-reliant Greek-style epistemology but does not deny his insights from the Israelite tradition. Instead, he strives to restore the wisdom spirit of Israel's tradition. Just as life cannot exist without death, and creation presupposes chaos, joy presupposes sorrow and futility. Qoheleth encourages the pursuit of happiness in daily life, in the here and now (3:22; 9:7-10), and speaks of overcoming nihilism. However, this differs from hedonism because it clearly defines the limits of happiness (12:1). Qoheleth, facing the reality of human death, does not lead to nihilism but instead leads toward the joy that God grants in everyday life.